

20세기 건축의 변화와 흐름

The Scope of the Architecture in 20th Century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누가 20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가?



1937년 파리 엑스포 독일관 모델을 살피는 히틀러와 슈피어
(사진출처: <http://www.dataphone.se/~ms/speer/1-03.htm>)

인간 사회의 상황인 현실로서 한 세기는 해당 거주자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끝자락에서 20세기를 되돌아 본다해도 우리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옛날 동굴에서 밖을 내다보던 원시인들의 절망이나 불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에펠탑을 세웠을 때나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인간들은 자만심을 지녔었다. 그러나 히틀러가 유태인을 태워 죽이고, 킬링필드에서 허망한 인간의 잔해를 보고 나서, 인간의 실체에 큰 의문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인류의 이상과 꿈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진 이데올로기나 정치로 인하여 인간들이 처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헤지펀드의 혜택을 즐기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리고 그 헤지펀드의 위력에 망한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동시에 전 세계에 방영되는 CNN을 시청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업에 도움을 받고 어떤 이는 시간을 죽이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송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구가 하나가 되었다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20세기에 파묻힌 이들에게 20세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단기 43세기를 이해하고 있다. 21세기의 첫날인 2001년 1월 1일이 19세기의 마지막 날인 2000년 12월 31일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도, 사람들은 숫자에 매료되어 그 날이 주는 흥분을 즐길 것이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Der Spiegel)이 평가¹⁾한 바로는 18세기의 테마는 '계몽주의', 19세기의 테마는 '진보에 대한 맹신', 그리고 20세기의 테마는 '히틀러와 원자폭탄'²⁾ 이라고 했다. 데어 슈피겔의 루돌프 아우그슈타인 발행인³⁾은 이번주 발행호부터 50회로 예정된 '20세기 결산' 특집의 서문에서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는 1901년 1월 1일 '20세기는 휴머니티와 인류애의 세기'가 될 것으로 낙관했으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히틀러와 원자폭탄'이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제가 됐다"고 밝혔다. 아우그슈타인은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 19세기는 진보에 대한 맹신이 지배한 시대"였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독일 해군이 필요하다"고 한 1899년 독일제국 빌헬름 2세 황제의 발언이 20세기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인스 같은 대 경제학자도 없고 무한히 증가하는 세계인구 문제를 해결한 묘안도 없다"고 진단하면서 "세계적인 빈부격차로 21세기의 인류 미래도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는 발칵대를 떠난 대포의 몸통과 같은 상황이며 발칸지역은 여전히 폭발 가능성이 있고 중동지역은 과격한 시오니즘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20세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문화부문에서는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금세기에는 헨리 무어를 비롯한 새로운 스타일의 조각가, 건축가, 화가, 음악가가 배출됐고 제임스 조이스, 프란츠 카프카 같은 천재 작가들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20세기 연표⁴⁾ 상으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주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14년 1차대전 발발, 1939년 2차대전 발발,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1945년 2차대전 종전, 1949

1) <http://www.spiegel.de/spiegel/index.html>
동아일보 981104 09면(와신) 뉴스, <http://www.kpi.or.kr/kinds-doc/general.html>
2) Hitler und die Atombombe.
3) Rudolf Augstein ber die Jahrtausendwe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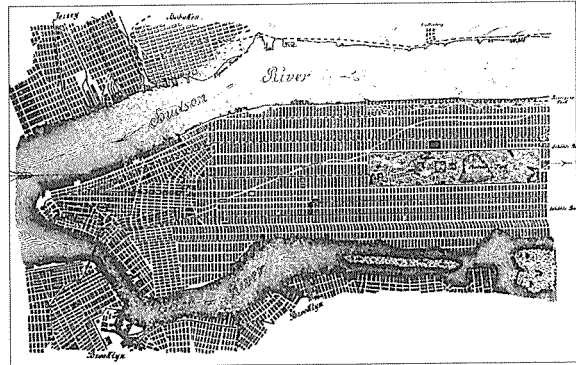
역사는 그 자체 내에 상호모순성을 지니는 양면성의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건축의 역사 또한 그러하리라.

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발족,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57년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 발사, 1959년 쿠바혁명, 1966년 중국 문화혁명 시작, 1968년 파리 5월 학생혁명, 1969년 아폴로11호 달착륙, 1975년 사이공 함락, 1976년 주은래·모택동 사망, 1978년 시험관아기 탄생, 1982년 뉴욕 100만인 반핵시위, 1986년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선언, 1989년 천안문사건·베를린장벽 붕괴, 1990년 독일 통일·동유럽 민주화, 1991년 소련 붕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출범, 1997년 북제양 돌리 탄생 등을 꼽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그 후유증을 거치면서 철학으로 표출된 근본적인 과제는 20세기 후반을 관통하고 있다. 그 과제란 인간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실망과 절망에서부터 철학자들의 깊은 반성으로 이어진 점이다. 서구에서 그리스 이래로 구축된(Construction) 모든 철학의 형이상학을 해체(De-Construction)하기에 이르는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프랑스의 '파리사태'나 '반전, 반핵 학생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새로움을 위한 노력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 새로움을 낳게 하는 혼돈과 그 혼돈 속에서 태어난 새로움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그 자체 내에 상호모순성을 지니는 양면성의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건축의 역사 또한 그러하리라.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남은 국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하다.

과거, 그 영원한 거울

우리는 영원한 과제인 역사에 비취진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그 사회가 지닌 복잡한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특정시기의 사회가 떠오른다는 사실은 19세기가 지닌 사회적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19세기에 하



뉴욕 맨해튼의 도시계획도
(출처: L. Benevolo,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p.210)

나의 모델로 중세 고딕사회는 근대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법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서구건축은 다양한 내용과 결과를 도출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대사회가 맞이한 모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⁵⁾

- 도시 비대화에 따른 열악한 슬럼가의 발생
- 육체만을 도구로 살아가는 노동자 계급의 존재
-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져다 준 조악하고 추한 물건들
- 크기만 거대해지고 건축적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

근대사회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19세기에 마주하여 중세시대가 건축가나 건축이론가에게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등장했다는 것이 어색한 것은 아니다. 1750년 그리스 파에스툼에 있는 도리아 신전을 방문한 스피노사는 생쥬스비에브 교회⁶⁾를 설계했는데, 고전적 어휘로 고딕건축의 어휘를 재창조하였다. 퓨진과 러스킨⁷⁾도 출발점에서 고딕양식을 모델로 철구조와 조화를 취하는 방법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20세기초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바우하우스도 중세의 시스템을 동경했다. 바이마르, 뉘른베르크, 베를린에서 시카고의 뉴바우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바우하우스의 교육이념은 창시자인 발터 그로피우스의 이상을 토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로피우스의

4) 20세기의 키워드 44개, 한국일보, 980609 33면 기획 3406자

5) 鈴木博之, "근대건축의 변용", 건축20세기 Part 1, 신건축 1991년 1월 임시증간호, 신건축사, 10쪽.

6) Soufflot, Ste-Genevieve.

7) Augustus Welby Northmore Pugin(1812-1852), John Ruskin(1819-1900).

세기말인 19세기 말엽부터 1910년까지 20여년간 다양한 현상 등이 존재했고
역사주의적인 것과 비역사주의적 건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축의 모델로써 새롭게 기계가 등장한 것은 20세기초의 일이다.

이상은 그가 작성한 1919년 선언문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선언문은 다음의 두 가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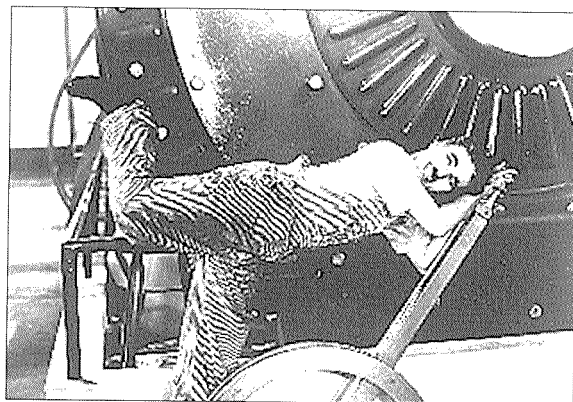
첫째, 건축(빌딩, 즉, '바우(Bau)')를 중심으로 모든 창조예술의 통합, 즉 바로크 미술 이후 상실되었던 일종의 '총체예술'⁸⁾ 이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둘째로는 19세기 중반부터 확대, 과장되어왔던 '천재의 감각'과 스케치의 신화에 밀려 폄하되었던 예술가들의 기술과 장인성의 재고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장인의 기준은 중세성당에 나타났던 장인정신이 기준이 되어 고딕성당의 모습은 선언서 표지에 등장했다.

이에 추가하여, 세번째의 목표인 실용성을 기초로 한 예술과 테크놀러지의 새로운 통합이 1923년 부가되었다. 그로피우스의 조형디자인과 장인정신의 철저한 훈련에 기초한 모든 예술의 통합 이념은 이제까지의 각 장르에서 진작 시켜왔던 미술이론과 실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활용하는 데 있었다. 바우하우스에서는 장인정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고딕정신을 빌려왔다. 중세사회 디자인 시스템은 근대의 거대한 생산시스템에 비하여 비판적인 모델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다. 도시의 중세주의는 전원도시를 탄생시켰지만, 중세도시의 자체 형태의 완결성으로 근대도시의 팽창을 수용할 수 없었다. 전통적 유럽 성채도시의 군사, 정치, 경제적 쇠퇴와 함께 1811년 뉴욕에서 격자도시가 탄생한 이후 새로운 도시들은 급성장해 갔다. 그들이 고딕에 탐닉했던 이유는 건축적 대상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예술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말 아르누보가 유행했을 때 그들은 다른 모델로 자연을 채택했다. 자연에서 유래한 다양한 자유로운 곡선이나 동·식물의 형태로부터 또는 이국적인 형태로부터 그 근원을 삼아 새로운 형태를 찾기 시작했다. 세기말인 19세기 말엽부터 1910년까지 20여년간 다양한 현상 등이 존재했고 역사주의적인 것과 비역사주의적 건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축의 모델로써 새롭게 기계가 등장한 것은 20세기초의 일이다.

Modern: 미국의 포디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면, 채플린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
(사진출처: <http://www.mdle.com/ClassicFilms/FeaturedStar/star6.htm>)

은 영화 '모던 타임즈'(1936)에서 다섯 번이나 실직한다. 채플린은 이 영화에서 컨베이어 벨트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백화점 야간 경비원, 철강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 등을 전전한다. 그가 일자리를 잃는 장면들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서글프다. 자본주의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돼버린 그는 결국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첫 번째 실직의 아픔을 겪는다. 찰리 채플린이 주연, 감독, 각본까지 도맡아 한 '모던 타임즈'는 이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 노동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했던 때를 배경 삼아 당시 체제가 만들어 놓은 인간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퇴출 그리고 실직자가 늘고 있는 지금, 영화에 나타난 그 당시의 아픔과 고민들이 예사롭지 않다.⁹⁾ 당시 미국은 대공황기였다. 대공황은 미국에서만 1천5백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했다. 포드의 경영방식, 이른바 '포디즘'(Fordism)의 독창성과 선구성은 "나는 자동차의 제조업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인간의 제조업자"라는 그의 말과 같이 기계기술의 혁신이나 합리화에 못지 않은 노동자의 관리방식에 있었다. 포드회사는 노동자들을 단순히 공장에서만 아니라 가정, 이웃관계에서도 이상적인 미국인이 되는 시민교육을 시키는데 주력했다. '포디즘'은 단순한 생산시스템이 아니라 '아메리카 시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됐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¹⁰⁾

8) Gesamtkunstwerk

9) '모던 타임즈' '민경택 기자의 시네마판데셀', 국민일보 980703 26면(문화).

10) 아메리카-아메리카즘-아메리카니제이션(우리가 살아온 20세기: 13), 문화일보 980502, 05면.

“

18세기 이래로 모던사회는 공적인 문화와 사회성, 그리고 공적인 생활과 공적인 공간이 사라지고 사적인 감정들만 노출된 사회였다. 근대 이래로 건축에서 개인적 취향을 표현한 개인 건축주가 나타난 것처럼 이미 개인이나 프라이버시의 속성은 근대의 인간들이 스스로의 과거와 이웃 그리고 자기자신들로부터 즉, 모든 공적인 관계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한다.

”

이전에 네덜란드의 교화노동소나, 벤담의 원형감옥에 근원을 두고 있는, 파놉티콘¹¹⁾은 원형감옥이다. 이 구조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생긴 것도 1821-1837년의 일이다. 파놉티콘은 새로운 형무소 시설로 근대의 새로운 건축의 주제였다. 방사선으로 이루어져 한 곳에서 입구 1방향을 제외하고, 7개 방향으로 뻗어간 감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게 만든 구조이다. 파놉티콘은 죄수들이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초기 교도소의 모습이다. 푸코(Foucault)는 죄수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죄수들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푸코는 “그러나 누구에게 감시당하는가? 당국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감시 및 억압기능에 충실한 감옥구조와 그 기능에 억압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추출된 건축의 당면문제는 기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구조와 그 거주자인 인간사이에 내재된 구조와 틀에 대한 것일 것이다.

모던건축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타난 근대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1920년대의 아방가르드(Avant Garde)는 빈센트 스컬리, 로버트 벤츄리, 로버트 스타인 등¹²⁾ 에일, 필라델피아 건축가나 정통파 학자의 경향이다. 한편으로 볼프강 펜트, 데니스 샤프, 콜린 로우 등¹³⁾의 그룹은 20세기에 들어서 등장한 모더니즘을 19세기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혁신적인 조형언어로 현재 진행중인 사조로 파악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모더니즘을 20세기에서 천년왕국의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시도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더니즘은 문화의, 생활영역의, 기술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화하였다. 19세기에 중세의 역할은 20세기에서 기계가 대신한다. 새로운 사회적 모델로 중세 개념에서 기계로 쉽게 대체되지 못했다. 티푸리와 달코는 ‘근대건축사’에서 근대건축의 역사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닌다고 말했다. 건축원리의 정체성을 잃어 가는 과정과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역사이다. 잃어버린 정체성 속에 건축원리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실종 또는 상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용어 “공적(Public)”과 “사적(Private)”인 것의 의미는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리처드 세넬트¹⁴⁾가

말한대로 18세기 이래로 모던사회는 공적인 문화와 사회성, 그리고 공적인 생활과 공적인 공간이 사라지고 사적인 감정들만 노출된 사회였다. 근대 이래로 건축에서 개인적 취향을 표현한 개인 건축주가 나타난 것처럼 이미 개인이나 프라이버시의 속성은 근대의 인간들이 스스로의 과거와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즉 모든 공적인 관계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인간들은 스스로의 집 속에 갇혀서 누군지 모를 존재로부터 감시 받는 파놉티콘의 존재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20세기 건축의 흐름

모순과 함께 매력에 가득 찬 세기말을 거치며 태어난 아르누보는 전형적 세기말의 형식이다. 아르누보가 디자인의 원천으로 자연을 바라본 것은 20세기초의 기계미학으로 보면 상반된 일이다. 세기말의 예술적 움직임은 다양한 명칭이 있을 만큼 다양한 조류와 움직임이 있었다.

1900~1910년간 아르누보에 이어 독일 표현파와 체코 큐비즘이 1910년대를 잇는다.

독일 표현파에 이어 네덜란드의 암스텔담파가 등장한다. 기계시대의 건축적 논리가 등장한 것은 미래파나, 독일공작연맹, 러시아 아방가르드 등을 거치면서 1920년대 대표적인 슈뢰더 주택(1924)과, 바우하우스 교장실(1923), 바이젠호프 집합주택단지(1927), 바르셀로나 전시관(1929) 등이 나타나면서 근대건축의 원리를 형성한 시기이다. 아방가르드 건축의 시발점이 되는 다양한 형태가 꽃피우고 본격화한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런가 하면 아이슈타인 탑(1924)으로 표현주의가 나타났고, 대중적 화제를 뿌린 ‘시카고 트리분사 설계경기(1922)’에서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이 패배했으며,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1926)이 있었다. 그래도 근대건축의 여러 조류는 이때까지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업사회의 추세, 도시화의 변

11) 일망감시, Panopticon.

12) Vincent Scully, Robert Venturi, Robert Stern.

13) Wolfgang Penht, Denis Sharp, Colin Rowe.

14)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Norton & Company, 1974)

“

1970년대는 현재의 상황을 암중모색케 한 중요한 변환기였다. 새로운 기술과 엑스포 등을 통한 하이테크 등 기술적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라스베가스의 교훈 (1972)”을 통하여, 벤츄리의 모던건축에 대한 반론이 계속 이어졌다.

”

화를 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모든 면에서 미국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1백16억 달러의 전쟁채권을 포함해 1920년 말에는 2백70억 달러의 해외 자원을 갖게 된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 여행자와 체류자 그리고 미국 재즈음악과 영화가 전 유럽에 범람하였다. 미국의 병사나 기업인들은 미국적 생활방식(Way of Life)과 생산품의 전도사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모더니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선두를 달리는 국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¹⁵⁾

1930년대는 바우하우스의 폐교와 히틀러 옆에 자리한 앨버트 슈피어가 등장하듯 건축적으로도 보수화 경향을 띤다. 이 때의 미스(Mies)가 지닌 고전적 기념성도 1937년까지 독일에서 행사된다. 독일처럼 모더니즘이 파시즘과 결합되거나 이탈리아처럼 파시즘이 모더니즘을 따라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며, “고전주의”나 “자연주의”로 나타난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20년대의 아르데코 건축과 함께, 의미 있는 전시회 “인터내셔널 스타일(1932)”에 관한 전시회가 열리지만, 미국의 건축적 상황으로는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1940년대는 건축에서는 불모의 10년이라 한다. 10년간 준비된 것이 후에 나타났고, 한편으로 건축 중심지의 이동이 나타났다. 게다가 유럽에서 건너간 스승들은 미국에서 폴 루돌프, 이오 밍 빼이, 필립 존슨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도피한 미이사에 의한 I. I. T 교사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증거물이 되었다. 1940년대 유럽은 1920~1930년대를 이끈 독일에 이어, 프랑스의 꼬르뷔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1950년대는 미스 반 델 로에의 활약이 돋보인다. 판스위스 주택(1950), 시카고 호반로 아파트(1951), I. I. T 크라운홀(1956), 시그램 빌딩(1958) 등을 계획하여 그의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는 고유한 형태의 건축을 만들었다. 그러나 10여년만에 무미 건조하다는 반론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국제주의건축”이 절정을 이루는가하면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더니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꼬르뷔제의 롱상교회(1951)와 위니데 디비디시옹(1953~1959)과,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1959)등이 그러하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발견하는 작업이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60년대는 미국의 황금기와 일본의 ‘메타볼리즘’의 등장인 건축계에 영향을 주던 때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유보되었던 기계를 통한 미래사회의 꿈이 2차 세계대전이후 새로운 경제규모로 활발히 복구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되던 시기이다. 거장들이 차례로 죽고, 그 뒤를 이은 형태주의자들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서 허우적대며 경기가 하강하고, 로마 클럽에서 지구의 환경·오염·공해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1968년 5월 23일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5월 혁명’이 기존의 질서와 가치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람들은 기계와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60년대 말의 “근본적인 회의”는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벤츄리의 “건축의 다양성과 대립성 (1966)” 그리고 타푸리에 의해 바우하우스 이래 경시되어 온 역사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현재의 상황을 암중모색케 한 중요한 변환기였다. 새로운 기술과 엑스포 등을 통한 하이테크 등 기술적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라스베가스의 교훈 (1972)”을 통하여, 벤츄리의 모던건축에 대한 반론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건축은 너무 그 대상을 역사주의나 형태적인 것에서 해결책을 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존슨의 ‘AT&T빌딩(1978)’은 벽장식 계층시계의 장식으로부터 형태가 추출되었다. 찰스 젠크스의 “건축의 포스트모던 언어”는 마치 건축적 진보와 역사적 퇴행을 맞물려 바라본 건축적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는 레이거노믹스의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미국이 부상한 가운데, 베니스 비엔날레(1980)가 있었고, 스티어링과 월포드의 스튜트가르트 신 국립미술관이 포스트모던 건축의 사례로 기억된다. 홍콩피크를 통하여 디컨스트럭

15) 아메리카-아메리카즘-아메리카나제이션(우리가 살아온 20세기:13), 문화일보 980502, 05면.

우리는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고전주의 건축과 새로운 건축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가까울 수 없는 서구 건축의 고전주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지.
1990년대에 진행되는 새로운 건축들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세기 건축유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선이 등장했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던 러시아 구성주의자들과 항상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런던의 AA스쿨을 확인시켜 주었다. 홍콩 상해은행, 로이즈 보험회사, 풍피두 미술관을 통하여 하이테크 사례를 보게 되었고 필립 존슨에 의한 "디컨스트럭션 전시회(1988년)"가 건축적 주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또한 1989년에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에 맞춘 프랑스의 "대통령의 프로젝트"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건축가들이 다양한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 20세기 건축의 흐름은 젊은 건축가들의 아방가르드로서의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의 반발과 건축가들의 좌절로 이어져 왔다. 그 어느 때보다 건축과 철학이 만난 시기인 90년대는 해체와 해체론 이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건축 형태를 만드는 철학적, 학문적 배경이 폭 넓어졌다. 60년대에는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던 건축이 이제는 전 분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20세기의 건축과 언어

20세기 건축을 개괄하면, 모던건축의 개화에 이어 포스트모던 건축의 탄생이 있다. 존 섬머슨은 「건축의 고전적언어(1963)」에서의 '고전주의의 본질'을 통해 "나는 건축을 언어로서 이야기 할 것이며, ... 여러분이 고전적 건물을 볼 때 건축의 라틴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고전적 건축은 그 근원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두고 있다 ... 그 사용이란 로마로부터 계승되어 와서, 르네상스와 우리 자신의 시대 사이 500년간의 모든 문명세계의 공통된 건축언어로서의 사용이다."라고 했다. 섬머슨은 라틴어를 세계공용어로 보았듯이 라틴건축의 세계적 사용과 그 본질에서 고전적인 것을 추출하고자 했다. 고전적이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적 정신, 형식, 주제 또는 소재가 잘 다루어진 작품을 가리킨다. 브로노 제비는 '건축의 근대적 언어(1973)'에서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오직 하나의 건축언어만이 성문화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전주의의 건축언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그 누구도 고전적 규범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여휘와 문법 또는 우리시대의 언어의 문장구조도 모르는 채,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와 건축학

도들이 수없이 많다... 건축에, 근대언어에 일련의 '불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그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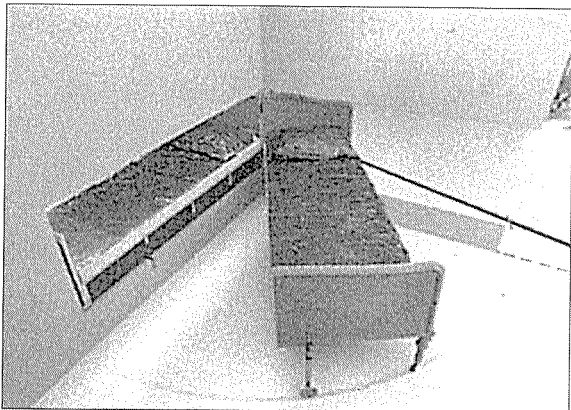
콜린 로우는 고전적 건축과 근대건축이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고전적 건축과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환기시켰고, 고전과 근대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찰스 젠크스는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1977)'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는 "역사적 유산, 지역적 맥락, 은유, 공간의 모호성 그리고 건축언어학의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된 혼합적이며 '복합적'인 건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 과거의 전통이나 형식이 그대로 혼합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 이전 어느 시대의 건물과 구별될 수 있는 1890년대 이래의 건축물을 근대건축물이라 한다. 20세기 건축의 배경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계에는 전쟁과 혁명을 경험한 인간들의 고민이 도사리고 있다. 20세기 건축의 성격도 역사적인 것에 대한 궤도이탈(혁명)과 궤도복귀(건축) 속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꼬르뷔제가 말한 '건축이나? 혁명이나?'고 말한 것¹⁶⁾도 그러한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꼬르뷔제는 건축적 혁명은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혁명적 건축은 언제나 고전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건축의 라틴어인 고전주의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와 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고전주의 건축과 새로운 건축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가까울 수 없는 서구 건축의 고전주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지. 1990년대에 진행되는 새로운 건축들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세기 건축유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포스트모던과 페미니즘

1967년의 심장이식 성공에 이어 1978년에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으며 1997년에는 복제양 돌리까지 탄생시켰다. 1928년 플레밍이 기적의 항생물질 페니실린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1960, 70년대에는 마약이 히피족 사이에 대항문화로 알려져 사회문제화 됐다. 1981년에 처음 보고

“
 사상적 측면에서는 60년대부터 부각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남성위주사회와 20세기를 성찰하게 했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무의식에 눈 돌리게 했다.
 ”



딜러와 스키피디오의 '벌어지는 침대' (사진출처: AA Files 17)

된 현대의 흑사병 에이즈는 성타락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다가서는 동안 신은 쉽 없이 인간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1947년에는 반도체가 최초로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사용돼 전자혁명을 주도하더니 1954년 레이저가 발명돼 산업, 의학, 우주항공 등 다방면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이론은 현대물리학의 기초가 됐고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조된 핵폭탄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다. 1969년 최초의 유인우주선 아폴로11호가 달에 착륙했으나 미확인비행물체 UFO의 미스테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1901년 상업화한 진공청소기는 세탁기(1900)와 함께 가사 노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켰고 1939년 출현한 나일론은 섬유혁명을 이루었다. 1925년 방송실험에 성공한 TV가 문화구조를 바꾸더니 지금은 할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문화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95년부터 본격 사용된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잇고 있다. 네트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점차 사이버 스페이스 인간이 되어간다.¹⁷⁾

이제 인류는 시티즌과 네티즌으로 나뉘고, 이들 사이에도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세계의 4대 모순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갈등인 동서간의 모순, 개발국가와 미개발국가 간의 갈등인 남북간의 모순, G7간의 갈등인 선개발 국가간의 모순,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차이 등의 갈등인 종족간의 모순이 남아 있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모순은 포스트모던의 배경이 되는 영원한 동반자인 여성과 페미니즘의 문제이다. 남성과 여성에 관한 뿌리 깊고 오래된 편견과 오해가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60년대부터 부각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남성위주사회와 20세기를 성찰하게 했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무의식에 눈 돌리게 했다. 각종 과학적 발명과 발견으로 인류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1955년 처음 보고된 경구용 피임약은 여성을 임신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 1948년엔 미국인의 성생활에 관한 킨제이보고서가 발표돼 충격을 주었으며 성개방 물결을 타고 1953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가 창간됐다.¹⁸⁾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남, 여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것으로 대별되는 우월적 존재와 그것에 상대되는 여성적인 것으로 대별되는 열성적인 존재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불균형에 관한 철학적 모색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푸코의 말대로 훈련과 처벌, 감금과 권력, 지식과 권력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서구 역사 깊숙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성과 비이성(광기), 서양과 동양, 인간과 자연, 존재와 무, 선과 악 등의 이원론에 적용된다. 이 이원론은 모든 이중성 또는 이중적 존재를 좌우하는 확고한 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존재와 무'에서 존재란 완벽한, 이성적인, 규범적인 존재였다. 고귀한 세계인 위로부터의 아래로 내려 온 '존재' 개념이 '실존' 일 것이다. '실존'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 결함을 지닌 인간 존재나 이와 같이 적용되는 모든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건축적 예를 들어, 파리시내의 모습을 이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도시로 바라본다면, 라 빌레뜨 공원은 건축가 쥘리에 의하여, 비이성적인 존재의 상징으로 만들어 기존도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되는 비이성적인 측면이나 대립되는 상황으로 연출되었다. 파리시내의 바로크 도로체계에 대응하여 폴리들은 직교좌표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시가지의 일반 건축물에 걸여된 색채인 붉은 색 상징으로 도시를 보완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건축물들에 걸여된 폴리들의 용도 역시 그러하다. 두 종류의 상대자들의 결합이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걸여되었던 중화된 도시와 건축의 상태이다.

16) Architecture or Revolution

17) 20세기의 키워드 44개, 한국일보, 980609 33면

18) 20세기의 키워드 44개, 한국일보, 980609 33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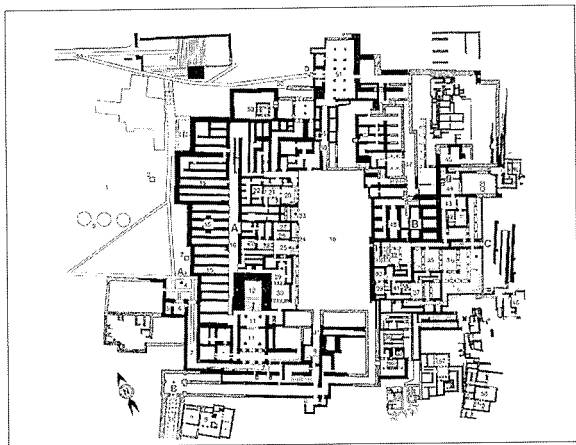
세기말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건축적 혼돈이 존재한다.
 꼬르뷔제는 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 새로운 건축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건축적 형태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중력을 벗어나, 우주 내에서 거주할 때의
 무중력 상황이 새로운 건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

현재 모색되는 새로운 건축은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반성이거나 형태적인 수정이다. 해체론은 그 틀을 수정하려 하지만 철학의 역사적인 관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이 다른 형태로 또는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건축적 다양화가 연결되어 있다.

베르나르 쭤미와 같이 근본적인 과제에 집중하는 건축가와 아이젠만처럼 ‘Decomposition’, ‘Deconstruction’, ‘Folding’ 등 현학적인 주제를 선택적으로 바꿔가며 형태의 현란함을 연출하고 있다. 쭤미와 아이젠만 사이의 간격만큼 다양한 건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미 벌어진 건축적 다양함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힘들게 따라갈 수는 있지만,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래, 그 영원한 미로



크노소스 궁전의 미로
 (사진출처 : http://DILOSimages-crete.com/knossos_plan.jpg)

미로는 항상 건축적 주제로 이야기된다. 우리는 갈힌 구조의 틀 때문에 미노스 왕의 ‘미로이야기’를 사려로 든다. 자신이 만든 건축물인 궁전에 스스로 건축가가 갇힌다는 그 구조의 한계성이 생긴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크레테의 미로¹⁹⁾는 크노소스 궁전에서 아테네 장인인 건축가 다에달러스(Daedalus)의 운명을 인간에게 빚대어 설명하여 건축가인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그리고 있다.

인간이 만든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건축은 완벽하지 않다. 도리어 미로처럼 인간을 구속한다. 그 구속된 상태는 인간을 미로 속에서 헤매게 한다. 아돌프 로스 이래로 신념을 가졌던 모던 건축물이 하나의 구속이 되고, 이것에 감금된 인간들은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들처럼 불안하게 감시자를 바라본다. 포스트모던 건축물들은 또 다른 구속이 아니겠는지? 어느 시대이건 각 시대에서 바라보는 특수하고 보편적인 유토피아가 있게 마련이다. 하나의 유토피아로서 미래는 언제나 “영원한 미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현실로서의 미래, 모순자체인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19세기의 유산으로 새로운 건축의 급속한 전파를 경험하였다. 20세기의 유산으로 전쟁 후 새로운 질서, 미학, 감성 및 새로운 세계의 희망에 대한 확신과 철근 콘크리트 조와 장식 없는 건축, 그리고 철골에 대한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우리가 이어 받은 건축적 유산으로는 미확인된 모더니스트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건축의 상대자로서 기계와 컴퓨터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기말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건축적 혼돈이 존재한다. 꼬르뷔제는 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 새로운 건축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건축적 형태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중력을 벗어나, 우주 내에서 거주할 때의 무중력 상황이 새로운 건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19) <http://dilos.com/region/crete/labyrinth.html>